

대학 정원 감축 '지방대 88% 독박'

(1만4244명)

2025년까지 전국 96곳 1만6197명... 호남제주권 2825명 교육부, 광주대·송원대 등 감축 참여대학 1400억 인센티브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호남제주권 일반·전문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입학 정원을 2825명 줄인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55개 일반대학과 41개 전문대학이 2025년까지 입학 정원을 1만6197명 줄인다.

호남제주권 대학 17곳이 포함됐으며 광주·전남 지역 일반대 중에서는 광주대, 송원대, 남부대, 조양대, 동신대, 목포해양대, 광주여대 등이 참여했다. 전문대는 청양대, 순천제일대, 여수 한영대가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233개대 가운데 정원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으로 입학정원 감축과 학부·대학원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 전환, 입학정원 모집 유보 등 계획을 수립한 대학이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신입생 미달로 위기를 겪는 가운데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1203억5000만원)는 지방대에 지원된다. 학제별로 일반대에는 1000억원, 전문대에는 400억원이 지원되며 감축 규모는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이다. 1400억원 중 20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선제적 감축에 대한 지원금은 840억원이고,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은 560억원이다.

감축 인정 인원 1인당 지원금은 일반대 선제적 감축 3270만원, 미충원분 감축 650만원이며, 전문대 선제적 감축 1514만원, 미충원분 감축 251만원이다.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 1300만원~최대 70억3600만원이며 전문대 2300만원~최대 28억 3200만원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들이 신입생 미달로 위기를 겪는 가운데 이번 사업을 통해 감축되는 정원의 88%가 지방대에 몰려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참여 대학 수와 감축 규모도 비수도권이 4

개 대학 1만4244명(88%)으로 수도권 22개 대학 1953명(12%)보다 많다. 비수도권 권역별로는 부울경권이 4407명, 충청권이 4325명, 호남제주권이 2825명, 대경강원권이 2687명이다.

지방대의 한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대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님에도 지방대 정원만 감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인구 문제는 전국 대학을 동일 선상에 놓고 봐야할 사안임에도 정부가 근시안적 정책을 쓰는 바람에 수도권 대학만 비대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지방대학이 적정규모화에 나서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는 "수도권 대학은 조금 줄인다. 정부는 그런 수도권에 반도체를 안긴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할 당국이 도리어 더 누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두 사업의 정책 목적은 별개"라며 "적정규모화 계획 인정 기준이 있다. 첨단학과 정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종합적 검토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정신장애인 인프라 부족

광주 정신장애인시설 16곳 뿐... 대전의 절반 수준

광주지역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 수와 등록 장애인 수가 비슷한 대전시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15일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정신장애인 지원방안을 주제로 지역 정치인과 사회복지학계와 장애인복지 현장전문가,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활동가 및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등 정신건강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현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행란 소화아람일터 센터장이 발표하는 '광주지역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실태 및 향후 지원 방안' 발표문에 따르면 광주지역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건강증진 시설은 생활·요양시설 5곳과 재활 훈련시설 11곳 등 총 16곳 뿐이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정신장애인 인구는 3170명이지만, 광주와 비슷한 대전지역(3221명)에는 생활·요양시설 8곳, 재활훈련시설 25곳 등 33곳에 달해 2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광주지역 장애인의 고용률은 30.2%에 그쳤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지자체 중 서울(29.0%)을 제외하고 광주의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광주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가 개정돼 정신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전무하다는 것이 발제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행란 센터장은 "타 장애 영역의 인력지원은 거의 1대1 수준이지만 정신장애 영역은 여전히 1990년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단기·중기적 계획으로 정신건강 증진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더 좋은 대학 가려고 중퇴합니다

지난해 광주·전남 신입생 2만2370명 중 2100여명 학교 그만둬 나주 동신대 325명 '최다' 민형배 의원 "지역 대학 지원 노력을"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합격한 10명 중 1명은 중도에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대학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대학에 합격하고도 수도권 등지의 인기 대학과 학과에 가기 위해 '반수'를 통해 대학 입시를 다시 치르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무소속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이 15일 대학알리미 사이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신입생은 2만2370명이었다. 이 중 광주지역 대학교에서 1263명, 전남 지역에서 898명 등 약 9.7%인 2161명이 자퇴나 미등록, 미복학을 사유로 중도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적신입생 중 중도탈락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나주 동신대로 1489명의 신입생 중 21.8%인 325명이 탈락했다. 다음으로는 광주 송원대가 785명 중 21.7%인 17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초당대와 광신대도 각각 20.7%와 20.3%라는 높은 중도탈락률을 기록했다. 신입생 5명 중 1명이 학교를 그만둔 셈이다.

동신대는 중도탈락한 신입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에도 최다치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300명이 넘는 학생이 입학하고도 동신대를 떠났다. 조선대와 광주대가 각각 269명과 250명의 중도탈락 학생 수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전남대는 광주캠퍼스 230명, 여

수캠퍼스 64명으로 합계로는 294명에 달했다.

광주과학기술원도 24명이 그만뒀 중도탈락 비율이 11.4%에 달했다. 반면, 광주교육대의 중도탈락자는 18명으로 5.3%에 그쳤다.

중도탈락의 주된 사유로는 자퇴와 미등록이 각각 58.8%(1272명)와 37.4%(808명)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합격하고도 이른바 '반수'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불가피한 원인 외에도, 신입생들의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현상에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민형배 의원은 "신입생 등 정원 미확보는 대학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이며 대학과 지역사회, 지자체간 유기적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법령 개정 등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지역대학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내 일자리 어디 있나 15일 광주시 동구 5·18민중추진위원회에서 열린 광주지방공용노동청 보건·의료분야 채용박람회에서는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열린 대면 채용박람회로 졸업을 앞둔 대학생부터 정년퇴직한 60대까지 1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석했다. 자동차분야와 정보통신기술분야 채용박람회는 오는 22일과 29일에 열린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내일을 위한 내 일 찾기' 매칭데이 개최

광주 북구 23일까지

광주시 북구가 지역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구는 지역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내일(tomorrow)을 위한 내 일(my job) 찾기! 2022 북구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던 행사를 올해는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해,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북구의 계획이다.

오는 23일까지 '광주 북구 일자리매칭데이' 전용

홈페이지와 '광주잡넷'에서 온라인 매칭을 실시한다.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전남대 컨벤션홀 일원에서 오프라인 현장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오이솔루션 및 엠코테크놀로지 와 옵토닉스, 트로닉스 등 100여개의 지역내 4차 산업 선도 기업과 강소기업이 참여한다.

매칭데이 기간 중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취업정보와 현지 직원의 직무 경험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라이브 직무토크쇼도 열린다.

이와 함께 자기소개서 무료 컨설팅, MBTI분석, 퍼스널컬러 코칭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 동구 용산초 졸업생, 남구 봉선중 갈 수 있다

시교육청, 학교군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광주 동구 용산지구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남구 봉선동 중학교로 진학하는 길이 열린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중학교 무시합 입학 추정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교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동구 용산지구에 거주하는 용산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남구 봉선동 중학교들로도 진학할 수 있는 길

을 열어주는 개정안이다.

용산초 졸업생들이 1학교군(무등중)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2학교군(남구 봉선중, 송의중, 동아여중, 문성중, 주월중 등)도 선택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행정 예고기간과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3학년도 중학교 배정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용산지구 주민들은 '용산초 졸업생 배정 중학교 학교군'이 행정구역상 동구로 묶여 있는 바람에 봉선동 중학교 진학 길이 막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왔다.

주민들은 용산지구 아파트 단지에서 무등중과 송의중, 동아여중 등까지 거리가 엇비슷하지만, 무등중보다는 봉선동에 있는 중학교들을 선호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첨단우리병원
드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